

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

2024년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록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24. 3. 6.(수) 14:00
- 장 소 :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콘퍼런스룸
- 참 석 : 총 10명의 위원 중 8명 참석
- 사무국 : 김연옥 사무국장, 서영옥 팀장, 윤재영 간사

연번	성 명	소속 및 직위	참석	비고
1	이학은	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명예교수	○	위원장
2	전영호	마산회원구 양덕2동 체육회 회장	○	간사
3	안병석	세무법인 태영 대표세무사	○	
4	신영규	경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조교수	○	
5	박경훈	창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전공 교수		
6	이경료	(주)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감사	○	
7	이상준	한울회계법인 경남본부 대표공인회계사	○	
8	이찬원	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		
9	이창흡	(주)동진생명연구원 대표	○	
10	홍종철	효창산업 대표	○	

□ 회의록 정리

1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-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고 이학은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. (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)

2. 참석위원 인사

-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.

3. 2024년 특별위원회 사업계획(안) 논의

1) 1안-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문화 축제(안)

- 김연옥 사무국장이 회의 안건지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사업 1안 ‘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·문화축제’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이학은 위원장이 이 안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전영호 공동 의장(간사)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기를 요청하다.
- 전영호 간사가 전년도에 추진했던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사람을 모으고 구청과 의논하는 등의 일들이 매우 어려웠음을 밝히며,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방향을 생각하다가 국제라이온스 협회의 목표 중 하나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회의 13번 목표(기후변화 대응)와 일치하여 같이 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계속 라이온스와 협의 중임을 말하다. 또한 지난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라이온스 총재대상 기후변화 특강을 진행했음을 설명하며, 확실하지는 않지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모실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하다.
- 이학은 위원장이 많은 시민들과 국제기구인 라이온스협회와의 행사이기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, 협의회 사무국들만으로는 벅찬 행사가 될 것 같다고 하다. 협의회뿐만 아니라 창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주도해나간다는 생각으로 전 위원들이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고 말하다.
- 전영호 간사가 해양누리공원이 무대 잔디밭의 경우 1,700여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행사 개최 여건 및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 등 시민 최대의 3,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한 창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해양누리공원으로 장소를 선정함을 말하다.
- 이학은 위원장이 행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며 안전요원이나 긴급 요원도 필요함을 말하다.
- 안병석 위원이 라이온스클럽이 각 104개클럽이 있으며,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처음임에 의미가 크다고 말하다.
- 이상준 위원이 협의회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음을 설명하다.
- 전영호 간사가 의미있는 행사를 위해 라이온스 대상 사전교육이 필요함을 설명하다.
- 이학은 위원장이 행사장소 근처에 경남대학교가 있으니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다. 과거 광려천 행사에서 안전요원, 의료봉사 등 마산대학교에 협의가 들어와서 200명 정도 지원했음을 설명하다. 경남대가 가까

이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다.

- 신영규 위원이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에 제안할 수 있다고 하다.
- 전영호 간사가 의미있는 지역 행사로 지역의 기업이 후원한다면 의미가 있으며, 경남은행을 비롯한 지역 기업 후원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한다.
- 이학은 회장이 협조문을 통해 경남대, 문성대 등 봉사단들이 많이 있으니 창원시 행사에 봉사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연락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.

2) 2안- 위원 워크숍 추진(안)

- 이학은 위원장이 안병석 위원에게 특별위 사업 2안 ‘위원 워크숍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안병석 위원이 현대문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도산서원을 다녀왔던 경험을 토대로 도산서원을 추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.
- 이상준 위원이 안동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영주 부석사가 있음을 설명하며, 오전에 무량수전을 들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도산 서원과 김성일 기념관(역사관) 등을 둘러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.
- 전영호 간사가 예산이나 위원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사무국에서 잡아보고 알차게 하루로 다녀오는 것을 제안하다.

4. 기타토의 및 일정 안내

- 이학은 위원장이 준비된 안건 외에 안건으로 상정하고픈 제안과 의견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.
- 이상준 위원이 지난해 낚시쓰레기 오염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 및 길거리 담배꽂초 등이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 결국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실천과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제안하다.
- 이학은 위원장이 공감하며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.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하다.
- 이학은 위원장이 창원은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모범 사례로 알려져있는데,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받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시에 제안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한다.

여러 가지 의견 중 우리가 선별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시와 협력하면 될 것이라고 하다.

- 이상준 위원이 시가 안 도와주면 언론이나 민간단체, 언론 등과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다.
- 이학은 위원장이 시정연구원을 불러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며, 맨날 기후환경국이나 이런 곳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 진행하는데 어렵다고 하니 다른 시민단체와 협조하는 등 끌고 나가는 것도 협의회 의 큰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하다.
- 이상준 위원이 공익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면 정치는 결국 표심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하다.
- 김연옥 사무국장이 시정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하고 있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다.
- 김연옥 사무국장이 2024년 사업추진 일정 및 3월 추진 일정을 설명하다.
- 전영호 간사가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을 읍면동 새마을 금고 대상도 교육제안하다.
- 이창흡 위원이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ESG, SDGs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며, 시와 지속협에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동진생명연구원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다.
- 신영규 위원이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교육분과위원회 회의 추진 일정 오기 사항 정정을 요청하다.

□ 회의사진

